

# 타인의 고통, 폭력への 무감각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o@naver.com

산스크리트어로 폭력은 히스마(hisma)라고 한다. 히스마의 부정어는 '아히스마(ahisma)', 영어의 '바이올런스(violence)' / '난바이올런스(non violence)' 와 같은 구조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폭력의 대립물은 결코 비폭력이 아니다. 폭력의 대립물은 바로 '권력'이다.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폭력과 권력은 전혀 다르다. 권력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상호간의 동의와 지지에 바탕한 것이라면, 폭력은 사람 수에 상관없이 강제적 복종을 지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 폭력의 세기

20세기는 폭력의 시대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비롯한 숭한 전쟁, 파시즘 나치즘의 득세, 홀로코스트, 민족분쟁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렌트는 <폭력의 세기>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 20세기 폭

력을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과학기술에는 발전 진보만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도구적 합리성이 이끌어 온 우리 근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과학의 발전을 만들어냈지만 어느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것이다. 즉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것이 폭력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의 진보는 위선일 뿐이다.

더구나 '폭력의 실천은 세계를 바꾼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여 바뀐 세계라면 좀 더 폭력적인 세계일 뿐이다.' 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폭력은 끝없는 또 하나의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전쟁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철저한 폭력이면서도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 악을 물리치기 위한 선, 부정의를 제거하기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화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 달 넘게 우리 국민, 우리 자녀들이 탈레반한테 인질로 붙잡혀 있다. 이미 2명이 살해당한 상황에서 인질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폭력의 정당화는 그 의도했던 목적이 미래 속으로 더 멀어질수록  
 설득력을 상실한다.

협상을 고집하고 있는 탈레반 인질 사태는 지루한 협상과 결렬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우리가 꿈쩍없이 인질 신세가 되어 버린 현실을 잘 보여준다. 협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에 냉담하기만 하다. 미국은 탈레반이 요구하는 '인질과 수감자'의 맞교환에 대해 '테러 단체한테 양보란 없다'는 국제적 규범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탈레반은 코란을 배우는 학생들이란 말에서 연유된 이슬람 원리주의(근본주의) 무장 세력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교조성이나 과격성이 종종 테러리스트를 낳지만, 사실 어찌보면 전 세계가 증오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키운 것은 오히려 열강들이다.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테러와 테러에의 공포 뒤에는 영토분쟁, 민족갈등에 해방군을 자처하고 타국을 점령하며, 아군과 반군에게 동시에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밀매상인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말하기를 “테러리즘은 좌절과 원한과 맹목적 증오를 표현할 수 있는 철학이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폭탄을 사용하는 일종의 정치 표현주의였다.

또한 그것의 반향이 큰 행위를 좋아하는 공중을 기쁘게 바라보고 또 사회의 평범한 계층에게 자기존재의 인정을 강요하기 위해 생명마저 희생할 준비가 된 정치 표현주의라”고 했다.

또 “테러가 절대적인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서로 고립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뿐이며, 그래서 모든 압제정부의 제1관심사가 개개인을 고립시키는데 있다는 점은 종종 관찰되고 있다. 고립은 아마 테러의 시작일 것이다. 고립은 테러의 가장 비옥한 토양일 것이다. 또한 고립은 항상 테러의 결과였다. 이 고립은 그 자체가 전체주의의 예비단계이다.”라고 썼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테러리즘의 만연은 그들을 자극하고 고립시킨 국제정책과 선제공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폭력의 정당화는 그 의도했던 목적이 미래 속으로 더 멀어질수록 설득력을 상실한다. 예컨대 정당방위에서의 폭력행사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위험이 분명히 눈앞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사후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폭력이 권력을 파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총구로부터 가장 빠르고, 완전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폭력의 이미지들에 무감각해졌다.

한 복종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명령이 나  
 올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많은 역사적 사건은 이  
 를 증명한다. 그러나 총구는 태생적으로 정당  
 성을 갖는 권력을 창출할 수는 없다.

### 전쟁은 이미지인가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  
 은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곧잘 잊어버  
 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그 무엇보다 견  
 고하고, 미디어는 매일 새로운 뉴스와 아젠다를  
 우리에게 던져줘 우리는 늘 새로운 사건에 몰입  
 해 빨리 잊어버린다.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경선과 후보들 간의 공방이 연일 미디어를 장식  
 하고 주식폭락과 폭등 기사가 국민들을 패닉상  
 태에 몰아가다보니, 정작 지금 이 시간 벌어지  
 고 있는 폭력에는 어느새 무감해지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밀접  
 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 나는 전  
 쟁터에 있지 않다는 그럴싸한 만족감, 낙관적  
 편견으로 타인의 고통을 구경한다. 먼 나라에  
 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참화는 단지 텔레비  
 전이나 보도사진에 담긴 이미지로만 다가온

다. 사실 부어스틴의 말이나 영화 <웍더독>의  
 주장처럼 전쟁은 이미지에 있는 지도 모른다.  
 네이팜탄에 폭격된 마을에서 도망 나오는 벌거  
 벗은 베트남 소녀의 사진, 마치 피에타처럼 기  
 형아를 안고 있는 일본의 원폭피해자의 사진이  
 전쟁을 증거 할뿐, 전쟁의 실체는 휘발하고 역  
 사는 이미지로 남는다.

현대성의 시민들은 스펙터클이 되어버린 폭  
 력의 소비자들이다. 전쟁터에 직접 가보는 위험  
 을 무릅쓰지 않고도 전쟁의 참상을 세세히 말하  
 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사람들이 TV,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  
 지는 재앙의 이미지를 속속들이 볼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들의 괴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커졌다는 말은 아  
 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폭력의 이미지들에 무감각해졌다. 보들  
 레르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매일, 매달 혹은 매년 신문지상에 인간의  
 사악함이 빚어낸 가장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소식이 실리지 않을 때가 없다. 처음 줄부터 마  
 지막 줄까지 모든 신문들은 공포에 질릴만한  
 소식투성이다. 군주들, 국가들, 사적 개인들이  
 저지른 온갖 전쟁, 범죄 절도, 호색, 고문, 사악  
 한 행위, 온 세상에 판치는 잔악행위등 등 문명

화된 인간은 매일 이 메스꺼운 전체로 아침식사의 식욕을 돋운다.”

미디어는 나쁜 뉴스를 행복한 뉴스인 광고와 나란히 제시한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범죄들을 머리기사로 다루는 이 미디어들의 재원은 행복하고 윤택해 보이는 자본주의의 이상을 담은 광고비에서 나온다. 광고는 대표적인 환상사업으로 광고이미지가 넘치는 현대사회는 가상과 실제의 구분어 어려워지는 시물라시옹의 시대, 스펙터클의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캐주얼웨어 회사인 베네통의 광고사진은 광고의 영역을 넘어 이미지의 폭력을 보여준다. 전사한 크로아티아 병사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셔츠의 사진을 자사의 광고캠페인에 사용했다. 마피아에게 피살되어 피가 웅덩이를 이룬 주검의 사진도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이미지를 통해서 본 ‘재현된’ 현실과 ‘실제’ 현실의 참담함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충격적인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의 반응 능력은 점점 무뎈진다. 연민이 극한에 다르면 결국 무감각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 타인의 고통

우리는 진정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고 수전 손택은 말한다. “우리, 즉 그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우리 모두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의 전후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손택은 타인의 고통을 편안히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휴머니즘은 사실 실체 없는 허구라고 지적한다. 연민은 쉽사리 우리의 무능력함 뿐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까지 증명해주는 알리바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그렇지 않다면 부적절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우리가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식으로, 가령 우리의 부가 타인의 궁핍을 수반하는 식으로)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다.”<sup>②)</sup>